

이재명 “檢, 남욱에게 연기 지도… 정적 제거위해 권력 남용”

검찰 수사 정면 비판…남욱이 2014년에 4억 건넸다는 주장, 검찰 연출 윤 정권 공포정치로 민주주의 질식…고위공직자 신원조회 심판 받을 것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7일 자신을 향한 검찰 수사와 관련해 작성 비판에 나섰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제가 전에 검찰이 창작 능력이 형편없다고 말씀 드린 바 있는데 지금 보면 연출 능력도 참 형편없는 것 같다”며 “(검찰이) 목표를 정해 놓고 조작을 해서 정치 보복, 정적 제거 수단으로 국가 권력을 남용하는 것은 결코 해서는 안 될 일”이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어 “(대장동 의혹 관련 민간개발업자) 남욱이 연기하도록 검찰이 연기 지도를 한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며 “(검찰의) 연출 능력도 낙제점이라는 생각이 들었다”고 강조했다. 남 씨가 재판에서 2014년 지방선거 당시 성남시장 재선에 도전했던 이 대표 측에 최소 4억 원을 건넸다고 주장한 것이 ‘남 씨의 연기를 지도한 검찰의 연출’에서 비롯한 것이라는 게 이 대표의 주장이다.

그러면서 “요새 호를 ‘씨알’로 바꿔라, ‘씨알 이재명’이라는 말을 듣고 있다”고도 했다. 이는 대장동 사건에 연루돼 구속됐다 지난달 풀려난 남욱 씨가 지난해 인터뷰에서 ‘(이 대표를) 10년 동안

찔렀는데도 씨알 안 먹히더라’고 말한데 이어, 최근 재판에서도 “이재명은 ‘공식적으로’ 씨알도 안 먹힌다”고 언급한 것을 염두에 둔 발언으로 보인다.

이 대표는 윤석열 정권을 겨냥해선 “권력을 남용하는 공포정치로 민주주의가 질식해가고 있다”며 “국가정보원이 대통령 지시에 따라 고위 공직 대상자를 광범위하게 신원조회를 할 수 있도록 시행규칙을 개정했다고 한다. 국정원에도 정치 개입의, 불법 사찰의 여두운 그림자가 드리워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이어 “윤석열 정부는 안보 기편을 국내 정치에 약화했던 정권이 어떤 심판에 직면했는지를 직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박찬대 최고위원도 최고위 회의에서 “일방적 진술을 앞세운 검찰 주장의 모순이 재판에서 드러나

고 있다”며 “무차별적인 피의사실 공표로 국민의 시야를 가리던 검찰의 시간이 지나고 재판이 본격화하자 대장동 사건의 진실이 밝혀지는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 검찰독재저지태업대책위도 이날 오전 입장문을 내고 “2일과 5일 공판 과정에서 지난해 남욱이 언론에서 밝힌 ‘씨알도 안 먹혔다’는 말이 사실임이 밝혀졌다”며 “표적수사로 없는 죄를 만들려 했던 검찰은 합당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불법 대선 자금 수수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은 “재판장에서 당당하게 정치검찰과 맞서겠다”고 밝혔다. 김 전 부원장은 7일 이재명 대표 팬 카페인 ‘재명이네 마을’ 등 인

터넷 커뮤니티에 공개된 옥중서신에서 “군사작전 하듯 체포와 구금, 조사·구속이 3일 만에 이뤄지는 데는 이재명 죽이기와 야당 파괴라는 정치검찰의 목표가 있음을 금방 알 수 있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대선자금으로 20억 원을 요구했다며 죄를 만들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검찰 정권의 의도대로 당이 흔들리지 않도록 많은 동지들과 당을 지키는 데 주력해달라”며 “정적을 죽이고 야당을 파괴하려는 세력에 맞서 국민을 살리고 지키는 민주당, 대표를 중심으로 흔들리지 않는 당이 될 수 있도록 앞장서 달라”고 당부했다. 공개된 옥중서신은 지난달 30일 작성한 것으로 되어 있다.

/임동욱 선임기자 tuim@kwangju.co.kr



민주당 최고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민주, 이상민 해임건의…거부시 국조 뒤 탄핵소추

의총서 문책안 결정…오늘 본회의 보고·내일 표결

더불어민주당은 7일 의총을 열고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을 예정대로 처리하기로 결정했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연 의원총회에서 이 장관에 대한 문책 방식을 두고 의견을 수렴한 뒤 이같이 결정했다고, 이수진 원내대변인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이 원내대변인은 “의원님들께서 이 장관에 대해 해임건의안으로 처리하자고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또 “이후 국정조사가 이어지면서 대통령께서 해임건의안을 무겁게 받아들여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 탄핵소추안 발의까지 진행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의총 후 기자들과 만나 “내

일과 모레 본회의에서 해임건의안을 처리하고, 국정조사를 내실있게 치르고 난 뒤에도 여전히 (이 장관이) 사퇴하지 않고 (대통령도 이 장관) 해임을 거부한다면 탄핵소추로 가는 게 더 낫겠다는 판단을 한 것”이라며 “다수가 뜻을 모았고, 이견은 없었다”고 설명했다.

당초 민주당은 지난달 30일 발의한 이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을 지난주 본회의에서 표결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지난주 본회의가 열리지 않으면서 이 같은 계획은 무산됐다.

먼저 해임건의안을 발의하고, 대통령이 이를 수용하지 않을 경우 이번주 탄핵소추안을 발의한다는 ‘2단계 전략’이 차질을 빚으면서 당내에서는 바로 탄핵소추안으로 가야 한다는 강경론도 나왔다.

원내지도부 역시 문책 방식을 두고 고심을 거듭

했지만, 결국 원래 계획대로 단계적 문책을 선택하기로 했다.

예산안과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등이 복잡하게 얽혀 있는 상황에서 곧장 탄핵소추안을 발의할 경우 정국이 급랭할 수 있다는 우려를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탄핵안의 경우 국회에서 의결돼도 헌법재판소로 공을 넘겨야 한다는 점도 부담스러운 대목이다. 현재에서 이 장관 탄핵소추를 기각할 경우 도리어 정치적 역풍이 일 수도 있다.

해임건의안은 오는 8일 본회의에 보고되고, 9일 본회의에서 표결에 들어갈 예정이다.

한편 국무위원 해임건의안은 재적의원 3분의 1(100명) 이상 발의와 재적의원 과반수(150명) 찬성으로 의결되는 만큼 원내 과반인 169석을 가진 민주당은 단독으로도 처리할 수 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여의도 브리핑

“감사원, 농어촌공사 감사…결론 정한 정치보복”

김희재 의원 지적

감사원이 한국농어촌공사에 대한 대규모 감사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정청도 세무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농어촌공사는 앞서 국민의힘이 지난 3월 자체 전수조사를 한 결과 ‘문재인 정부 임기 말 알박기 인사’가 이뤄졌다고 지목한 곳이다.

더불어민주당 김희재(여수시울) 국회의원은 7일 “한국농어촌공사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감사원은 한국농어촌공사에 대해 지난 8월 31일부터 시작된 ‘재무건전성 관리 및 경영관리 실태’ 등의 감사를 포함한 5개의 감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중 실지감사가 이미 진행 중인 감사만 4개에 달했다. 특히 ‘재무건전성 관리 및 경영관리 실태’ 등의 감사는 8월 31일 시작되어 12월 16일까지 진행될 예정이다. 감사기간만 약 3개월에 달한다. 감사원은 이에 더해 ‘어촌뉴딜 300 추진’, ‘신재생



에너지 추진실태’ 등 문재인 정부 역점사업에 대해서도 감사를 진행하고 있다.

국세청 역시 한국농어촌공사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드러났다. 부산지방국세청은 지난 9월 2일부터 한국농어촌공사에 대한 세무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세무조사 기간은 12월 16일까지이다.

부산지방국세청의 한국농어촌공사에 대한 세무조사 착수에 의구심이 든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부산지방국세청의 관할 구역은 부산, 울산, 경상남도, 제주특별자치도이지만 한국농어촌공사는 나주에 위치하고 있다.

김희재 의원은 “사정기관들이 월팀으로 전 정권 인사 사퇴 압박에 나서고 있는 것 아니냐”면서 “결론을 정한 정치보복이자 직권남용을 저지르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오광록 기자 kroh@

국회의원 35명, 청소년 선정 ‘선플상’

선플재단 선플운동본부(이사장 민병철)는 7일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국회의원 아름다운 말 선플상 시상식’을 열고 국회의원 35명에게 상패를 수여했다고 밝혔다.

고등학생과 대학생 300여명으로 구성된 ‘전국 청소년 선플SNS기자단’이 지난 1년간 본회의·상임위원회 회의록에서 각 의원의 순화 언어 사용 현황을 분석해 수상자를 선정했다.

‘선플대상’ 수상자로는 김진표 국회의장을 비롯해 국민의힘 이재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황희 의원 등 3명이 선정됐고, 이외에도 국회의원 28명이 선플상을, 4명이 공로상을 받았다.

김 의장은 “우리 미래를 이끌어갈 청소년들이 선정한 상을 받게 돼 더욱 의미 있게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국회 내 선플문화를 확산시켜 의원들의 언어 사용이 모범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선플재단은 여야 국회의원 299명 전원이 정제된 언어사용을 약속한 ‘국회의원 선플정치선언문’에 서명을 마쳤다고도 밝혔다.

선언문에는 “남을 격려하고 배려하는 선플운동에 동참하고, 아름다운 말과 글, 태도와 행동으로 정치권 동료들을 대해 국민 화합과 통합의 정치를 이룩하는 데 앞장서겠다”는 내용이 담겼다.

선플은 ‘악의적인 댓글’을 뜻하는 ‘악플’의 반대 개념으로, 선플재단은 2007년부터 온라인상의 악플과 혐오 표현 추방을 위해 관련 캠페인을 벌이고 있다.

/연합뉴스

신안동, 상업용지

- 엄마요양병원 옆
- 대지 176평
- 일반상업지역
- 오피스텔 허가 有 (10층, 72호실)
- 타용도 설계 변경 가능
- 매매 - 23억

대인동, 상업용지

- 롯데백화점 부근
- 대지 156평
- 일반상업지역
- 오피스텔 허가 有 (9층, 64호실)
- 타용도 설계 변경 가능
- 매매 - 20억

수기동, 제일오피스텔

- 20층 중 17층
- 계 14평, 전 9평
- 무등산 방향
- 일조권 전망최상
- 사무실 전용
- 매매 - 6100만원

덕남동, 임야

- 전대병원 부근
- 지분매매, 200평
- 도시지역, 자연녹지
- 그린벨트, 도로접
- 개발호재 많음 (기획부동산 물건 아님)
- 매매 - 6천만원

상담 및 문의. 010 - 4159 - 9700